

옛날 사름이
작원당에서 검질을 매다가
겁비가 오란 담어염에 쉬는디,
검질매단 훈 스나이놈이
손에 붙은 진흙을 다듬안
동작석을 맨들안
큰 담고망에 세우멍
“늘랑 이디서
넘어가는 사름
넘어오는 사름신디
인정이나 받아먹으멍 살라.”
흐난,
그 후 일년이 넘어가난,
그 스나이놈이 아팠,
어딜 간 문점을 흐난,
“손으로 뭉직한 죄,
입으로 속절헌 죄,
눈으로 본 죄라.”하니,
심방을 청흐연 빌고,
곳을 치난
빙이 좋아지난,
흐를날은 이 스나이놈이
그딜 간
그 담고망엘 보난
아닐카, 그때 맹근 동작석이
세와둔냥 그냥 시연,
“요게 뭘, 신령이 신곤?”
흐연,
뚝기 그난
피가 불끈 나난,

글주후론,
넘어가는 사름이나
넘어오는 사름이나
이 질을 넘쟁 흐민
그냥은 넘질 못흐곡
아뭇 신착을 하나
벗영 대끼나.
혹은, 다림을 훈착 클렁
대끼나,
흐다못흐영
돌새기라도 하나 좇영
이 자원당데레 대경
인정을 걸어사
그 질을 곱게 넘어가게 되니,
시상 사름들이 훗술 흐민
“죵원당 우망흐듯”이
말을 곱듯,
이덜 당으로 위홉네다.

제일, 죵손에 생기 맞은 날,

<한림읍 수원리 여무 71세 고봉아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05-606.